



## ‘세계를 향한 인술의 빛’ 고려대학교병원 70년사 발간

### 고대병원 최초의 공식적인 사사, “역사적 가치 매우 커”



고려대학교병원 70년의 역사를 담은 ‘세계를 향한 인술의 빛’ 고려대학교병원 70년사가 지난 9월 30일 발간됐다.

총 294 페이지로 구성된 이 서적은 ▲제1부 고려대학교병원 70년(1장, 경성여의전에서 세계고대병원까지 · 2장, 국내 최초로 만들어가는 고려대학교병원) ▲제2부 부서소개(1장 진료부서, 2장 특성화센터, 3장 진료지원부서 및 경영지원부서) ▲제3부 핵심가치(1장 탁월한연구, 2장 환자제일주의, 3장 글로벌 인재양성, 4장 사회적책임, 5장 협력과 소통) ▲제4부 미래비전(1장 고려대학교병원 2020, 2장 We are Experts) ▲제5부 부록(고려대학교병원 연혁, 수상내용, 조직도, 현 보직자명단, 역대 병원장 명단, 주요통계, 70주년 기념행사, 원로교수 좌담회, 편찬후기) 등 총 5부로 나뉘어져 있다.

이 서적은 고려대학교병원 최초의 공식적인 사사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크고, 지난 70년간의 병원 역사를 총 망라해 원내 의료진을 비롯한 전제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한국의학사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려대학교병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의학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많은 성장을 했다. 일제 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걸어 인술의 외길은 국내 뿐만아니라 전세계 각국에서의 의료봉사를 통해 생명 존중과 인류애를 실천하며 의료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해왔다.



시자편찬위원회 기념사진 (위원장 김형규 교수, 맨 뒷쪽 가운데)

#### 고려대학교병원이 걸어온 길

- 1941. 09.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개원
- 1957. 01. 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개칭
- 1967. 03. 우석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개칭
- 1971. 12.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우석학원으로 합병함에 따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우석병원으로 개칭
- 1976. 0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개칭
- 1983. 09. 고려대학교 의료원 발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의과대학부속 혜화병원으로 개칭
- 1991. 10. 고려대학교병원 신축이전 개원식
- 2009. 07. 고려대학교병원 JCI 인증
- 2011. 09. 고려대학교병원 개원 70주년 기념식 개최

#### [ 발간사 ]



김창덕 병원장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병원장 김창덕입니다. 민족의 자원으로 설립되어 한국 근대의학사와 명맥을 함께했던 고려대학교병원이 올해로 개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1941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의 부속병원으로 명륜동에서 시작하여 1971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우석의대를 인수해, 1976년 고려대학교 우석병원에서 고대병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수차례의 개명과 합병을 거쳐, 개원 50년 만에 서울 중로구 명륜동 시대를 마감하고 1991년 안암동 녹지캠퍼스에 자리를 잡은 고려대학교병원은 최상의 진료와 끊임없는 연구, 내실 있는 교육에 힘쓰며 국내 의학발전을 선도해왔습니다.

국내 근대의학을 선도해온 고려대학교 병원은 2009년 8월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실천을 위해 JCI 국제 의료기관인증 획득해 세계속의 병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2009년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2010년 11월 FERCAP 인증, 2011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등을 통해 최고의 병원브랜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려대학교병원의 눈부신 발전은 지난 70년간의 선배 교수님들과 의료진, 교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그 동안의 발자취를 기억하기위해 개원 70주년을 맞이하여 ‘고려대학교병원 70년사’를 발간하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초석으로 삼아 국내의 의학발전을 선도하는 중심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거점대학이여! 의학발전기금기부

11.06.02	박시영	₩ 5,000,000	11.06.28	한성테크	₩ 2,500,000
11.06.02	김재홍	₩ 10,000,000	11.07.15	(주)아이엔씨풀서비스	₩ 3,600,000
11.06.01	의과대학29회동기회	₩ 15,000,000	11.07.25	굿푸드	₩ 5,000,000
11.06.15	권오경	₩ 300,000	11.08.05	한국 RMS(주)	₩ 4,200,000
11.07.14	박창현	₩10,000,000	11.08.08	(주)아이엔씨풀서비스	₩ 10,000,000
11.07.22	김백현	₩1,000,000	11.08.25	뉴케어메디컬시스템	₩21,900,000
11.08.26	김영철	₩ 10,000,000	11.10.07	김철민	₩ 5,000,000
11.06.14	서병무	₩ 1,500,000	11.09.30	김관임	₩ 6,000,000
11.08.26	의과대학44회동기회	₩ 140,000,000	11.10.19	허기웅,송태순	₩ 10,000,000

\* 기간 : 2011년 06월 02일~2011년 10월 19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한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 ‘2011, 소비자의 선택’ 브랜드 대상 수상

[ 특 집 ]

### 고객편의 최우선, 편의시설 확충 및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고객 만족도 ‘쑥쑥’



오른쪽 김창덕 병원장, 왼쪽 중앙일보 민병관 이사

브랜드를 알리는 취지의 시상으로 조인스엠에스엔이 주최하고 중앙일보와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후원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진료예약 편의 증대를 위해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및 외국인 환자를 위한 다국어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콜센터를 개설해 보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진료 예약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환자의 동선을 감안해 외래진료 부서를 재배치했으며 환자·보호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다양한 직종에서 친절리더를 선발해 여러 이벤트 사업을 전개하고 친절아카데미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해 웃음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서비

고려대학교병원이 종합병원 부문 ‘2011 소비자의 선택’ 대상에 선정돼 전문가와 소비자가 선택한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인정받았다.

2011 소비자의 선택은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선사한 부문별 대표

스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있다. 그 결과 반기별로 시행하는 병원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도 매년 꾸준한 향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7년도 의료기관 평가에서는 환자권리편의, 감염관리, 시설환경관리, 질 향상체계, 환자진료, 의료정보의무기록, 영양, 수술관리체계, 약제관리, 중환자, 모성과 신생아 부분은 모두 100점을 받아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우리는 국내·외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를 위한 나눔과 봉사의 의료기관이 된다”는 고대병원의 핵심가치 실현 사업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원도 인제 수해지구 무료진료, 태안 기름유출 봉사단 파견, 지역 내 복지시설 무료진료 등 국내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을 비롯해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아이티, 동티모르 등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재난현장에는 항상 대규모 의료봉사단이 선도적으로 파견돼 눈부신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이 카자흐스탄에 나가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카자흐스탄에 본원 장기 이식팀을 파견해 수도 아스타나에서 최초로 신장 이식에 성공해 생명을 나누는 등 세계 곳곳에 코리아 인술을 알리고 있다. 



수상 트로피

## “잠 잘 자면, 인생이 달라지지요”

[ 클리닉소개 ]

### 당신의 숙면, 수면센터가 책임지겠습니다.



수면장애환자가 수면다원 검사를 받고 있다

인간에게 수면은 에너지가 넘치는 일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휴식, 충전” 즉 “쉼”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다.

고려대학교병원 수면센터는 수면 중 발생하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다. 수면의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진단 및 치료방법이 거의 국내에 소개, 적용되지 못하던 시기부터 고대병원은 국내 수면 의학을 진일보시키며 성장해왔다. 우리 인생의 1/3이 수면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미 수면의학이 발달한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수면은 그저 각성이 없는 수동적인 상태로 수면장애의 심각성이 경시되어 왔다. 코골이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단순히 잠버릇의 일종이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코고는 사람 중에 고혈압, 뇌졸중, 부정맥 등이 빈번하게 관찰되면서 이제는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되었다.

수면센터는 정신과와 신경과 의료진이 수면장애를 하고 있어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다양한 클리닉을 갖추고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코골이 수면호흡장애 ▲소아코골이 성장학습 ▲불면증 ▲기면증-과수면 ▲하지불안증후군 ▲주기성 사지운동장애 ▲수면중 이상행동 ▲이갈이 ▲만성피로 등 수면질환으로 문제되는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다.

선진기술 도입 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힘써 온 결과, 다양한 수술방법을 각각의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치료하는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만족을 드러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코골이/수면무호흡 분야에서 양압기(CPAP), 구강내장치 등의 비수술적치료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모든 종류의 중증 수면무호흡 수술을 통해 우수한 결과를 입증해 왔다. 또한, 수면센터에는 편안한 수면검사를 넓은 더블베드와 고급 시트와 이불사용, 검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건 잠옷을 비롯한 모든 세면도구 제공 국제적인 수준의 수면전문의 상주 및 수면기사가 신속한 검사와 전문적인 판독을 실시한다.

특히, 수면센터는 대학병원에 걸맞는 수면장애 환자를 위한 꾸준한 연구개발과 학술 교류 등을 통해 국내외 환자에게 적합한 코골이/수면무호흡 수술법 개발에 매진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속의 수면장애 전문 센터로 당당하게 발돋움 하고 있다.

신경과 정기영 교수는 “단순히 수면무호흡이 얼마나 없어졌느냐 수준을 넘어 환자 한분한분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추구하면서 진료를 보고있다”며 “수면센터는 편안한 잠자리와 상쾌한 아침을 꿈꾸는 사람들과 늘 함께해 국내 최고의 수면장애 치료센터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진 | 신경과 정기영 교수  
외래 | 02)920-5510  
정신과 김린,이현정,윤호경 교수  
외래 | 02)920-5505

#### 고대병원 수면센터의 특징

- 최첨단 진단장비
- 전문화된 의료진
- 친절하고 알기쉽게 설명하는 병원
- 끝까지 책임지는 의료진
-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
- 연구하는 센터

## 버려질 뻔 한 간으로 새 생명 살려내

[스페셜리포트 1]

### 장기이식센터 김동식 센터장, 모두가 'NO'한 간으로 한 생명 꽃 피워 간 이식 불가 아버지와 전격성 간염 판정받은 딸 환자 모두 간이식 성공시켜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받아 건강을 회복한 김태곤씨와 수술을 집도한 김동식 교수 (맨 오른쪽)

모두가 이식이 불가능 하다 고 판단한 버려질 뻔한 간으로 보란 듯이 이식수술을 성공시킨 장기이식 전문가가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엔 기적적인 간이식 성공으로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한 의료진은 장기이식센터 김동식(41, 金瞳植)센터장으로, 김 교수의 집도로 생명을 건진 주인공은 김태곤(남, 65)씨다.

김씨는 2004년경 간암선고를 받고 화학색전술과 고주파치료 등 7년 여간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치료를 받았지만 병이 호전되지 않아, 이제 간이식이 아니면 생을 마감해야 했다.

되어 간 적출수술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앞 순위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이 이식을 모두 거부했고 결국, 김씨에게 기회가 오게 되었다.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찬스'였다. 장기이식센터 김동식 센터장은 무엇보다 기증자의 간이 정상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의 어려움만 극복하면 김태곤 환자에게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간 적출수술을 실시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8일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하고 10월 13일 퇴원했다.

간 이식 수술을 집도한 장기이식센터 김동식 센터장은 “공여자의 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과거 수술로 인한 주변 조직과의 유착이 심하고, 간주변혈관들의 일부가 이전 수술로 절단되어 있고, 간외의 담도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런 기술적 문제만 잘 극복하면 충분히 김태곤씨와 같은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간이식은 대기자가 워낙 많아 수술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곤 씨의 딸 김윤실(35세)도 김동식 교수의 간이식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부녀가 한 병원에서 같은 의료진으로부터 간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것이다. 김동식 교수는 고대의대에 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 후 美신시내티대학 복부 장기이식외과 조교수로 재직하다 2009년 가을에 합류해 국내 최고수준의 간이식 전문의로 왕성한 활약을 하고 있다. 



김동식 교수(오른쪽 끝)와 환자 및 가족이 밝게 웃고 있다

다. 사실, 간이식 상당부분 진행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이식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김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간절한 심정으로 내원해 간 이식 상담을 받고 올해 4월 20일 간이식 대기자로 등록했으나, 이식대기자 244순위로 뇌사자로부터 간을 기증받기는 힘든 상태였다. 그러던 중 올해 8월에 한 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또 다른 병원의 급성 간부 전으로 매우 위독한 환자에게 이식될 예정의 간이었다. 그러나 기증자가 과거에 큰 개복 수술을 받아 간주변의 혈관과 담도구조가 변형되어 있고, 심한 유착이 있을 것이 예상


## 암 환자를 위한 김중만 작가 사진전 '낙원' 개최

[스페셜리포트 2]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3층 본원 로비에서 열린 이번 사진전 '낙원'은 세계의 자연 환경과 아프리카에서 촬영한 김중만 작가의 사진 20점이 전시됐으며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다. 낯설게 느껴졌던 아프리카를 이웃의 이야기처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였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암 환자에 대한 관심과 예

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김장덕 병원장은 “이번 사진전은 치료로 인하여 외부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넓은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울러 일반인들에게도 마음의 평화를 선사할 수 있는 기회”라며 “병원을 찾는 모두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중만 작가는 1954년 철원에서 출생하였다. 프랑스 니스의 국립응용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으며 77년 프랑스 아를 국제 사진전에서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79년 귀국해 바자, 보그 등 패션지 작업을 비롯하여 스타, 패션 사진을 많이 찍었다. 2000년 1월에는 한국 작가 최초로 아프리카 사진집 '동물왕국'을 내기도 하였다. 한편, 김 작가는 고대의료원의 아프리카 의료 봉사에 동행하면서 아프리카 환자들의 모습을 생생히 담아내는 등 고대의료원과의 인연을 지속해오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가 김중만씨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 제7회 심장수술의 날 성황리에 마쳐



고려대병원 흉부외과는 10월 15일 오전 10시 병원 8층 대강당에서 '제7회 심장수술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심장수술의 날 행사는 흉부외과(과장 김광택)가 주최하고, 김창덕 병원장과 김형묵 명예교수를 비롯해 심장수술환자와 보호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흉부외과 정재승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선경 교수의 개회사, 김창덕 병원장의 축사, 김형묵 명예교수의 기념사에 이어 심장수술환자를 위한 건강강좌의 순으로 진행됐다. 건강강좌 이후 경품추첨, 음악회, 오찬까지 이어진 이 날은 의료진과 환우들이 각별한 인연을 과시하며 개별 건강상담 까지 이루어졌다. 흉부외과 선경 교수는 "심장수술은 수술 후 자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약물요법과 식이요법을 실천해서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형묵 명예교수는 "매년 행사에 많은 환우들이 참석해주셔서 기쁘다"며 "많이 웃고, 즐거운 생활을 하시는 것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환우들을 격려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한 환자는 "수술 후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유익한 정보도 얻고 환우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 책임간호사 워크샵 성료



간호부는 9월 26일 각 병동의 Chief Charge Nurse 1인을 초청하여 책임간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공감과 칭찬, 멘토링과 코칭의 4박자 감성리더십으로 간호사들의 애사심을 높이고

또한 책임간호사로서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는 간호부는 소통리더십을 발휘하여 책임간호사와의 화합과 통합이라는 아름다운 장을 구현했다. 원내에서의 1부 프로그램으로는 DISC(행동유형 진단프로그램)를 통한 자기이해의 시간으로 행동유형별로 자신을 진단하여 각 유형별 성향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일상에 접목시켜 간호업무 시 환자·보호자 응대 및 동료 간의 의사소통술기에 이르기까지 콜라주(Collage)기법을 사용하여 4개의 행동유형 조별 활동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부 순서로 병원 밖에서의 아늑한 만남의 장을 열어 저녁식사와 함께 책임간호사로서의 고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토크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 간호부 1004 DAY 행사 개최



간호부는 10월 4일(화) 3층 로비에서 '1004 DAY' 행사를 진행하였다. 매년 10월 4일을 천사데이로 기념하여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병원을 방문하신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비만도 무료검진 및 관절에 관한 건강 상담을 통해 내원고객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는 우리병원을 사랑하고 이용해주시는 내원객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한편,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하는 병원임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취지에서 진행하였으며, 약 700 여명의 환자 및 보호자가 참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간호부는 앞으로 매년 1004 DAY에 맞추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병을 치료하는 3차 예방뿐만 아니라 1, 2차 예방을 제공함으로써 미래고객 유치 및 지역사회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뷰티클래스로 더 아름답게



간호부는 10월 14일 오후 12시와 3시 30분 2차례에 걸쳐 회의실에서 원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비결! 뷰티클래스'를 마련했다. 이번 뷰티클래스는 성북구 간호사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 강사를 초빙하여 간호사들에게 유니폼

을 입었을 때 더욱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지적으로 보이는 메이크업 방법들을 소개했다. 뷰티교실에 참석한 한 간호사는 "보통 상황에서는 예쁜 화장인데 유니폼을 입으면 어색하게 보일 때도 있어서 좀 난감했었는데, 몇 가지 화장기법을 배우고 나니 고민됐던 것들이 해결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윤수 간호관리팀장(성북구 간호사회장)은 "뷰티교실을 통해 유니폼과 어울리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내면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KUMC모바일' 時代 OPEN



고대의료원은 10월 11일, 전자의무기록과 OCS를 모바일로 연계한 스마트폰 기반의 의료지원 시스템인 'KUMC모바일'을 오픈했다. 이에 따라 주치의 및 의료진들이 이동 중이나 외국 등 원격지에서 환자의 모든 차트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빠른 처방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진료와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응급호출시 스마트폰에 엑스레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전송해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등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진료와 조치가 가능해졌다. 'KUMC모바일'은 의료진에게 진료에 필요한 환자의 모든 차트, 엑스레이 등의 의료 정보는 물론 수술스케줄, 병동환자조회, 응급환자조회, 응급호출, 예약환자, 보이스 레코딩, 바코드 환자 조회와 같은 업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KUMC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고려대병원 의료진에 한해 ID를 발급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환자의 의료정보를 암호화해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등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철저한 보안체제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KUMC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주)네트워킹두뇌그룹 더파워브레인스(대표 정태성)와의 업무계휴를 통해 개발됐다.




병원소식

### ‘Universitas 21(U21) 성공적 개최




고려대 의과대학(학장 서성욱)은 고대 간호대, 보건과학대, 임상치의 학대학원, 약대와 함께 지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2011년도 U21 보건의료계 연례총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세계 우수 대학들과 의학 및 보

건의료 관련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국제협력을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계 동향 및 주요 관심사에 대한 학술발표와 분과별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한편, 고려대 보건의료계열 4개 단과대학 학생 주도의 다학제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유엔세천년과제에 대한 UN MDG 워크숍과 간호학박사생 포럼등이 함께 개최됐다. 연례회의에는 김병철 고대 총장, 손창성 고대 의무부총장, 서성욱 고대 의대학장, 한광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김창덕 고대병원장, 김우경 고대 구로병원장 등을 포함해 미국, 멕시코, 스웨덴, 홍콩 등 세계 13개국 16개 회원교의 보건의료계 단과대학 학장, 국제교류 관련교수 및 학생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이번 U21 보건의료계 연례행사에서는 회원교간 교류협정 체결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어 향후 정식내용을 담은 협력체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 ‘신규간호사와의 아름다운 만남’ 의 장 가져





고려대병원 간호부(부장 이은숙)는 10월 17일(월) 신규간호사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선했다. 병원에 입사한 지 1~3개월 된 신규 간호사 40여명을 초청해 DISC(행동유형 진단프로그램)를 통한 자기이해의 시간으로 행동유형별로 자신을 진단하여 각 유형별 성향 및 장단

점을 파악하고, 이를 일상에 접목시켜 간호업무 시 환자·보호자 응대 및 동료 간의 의사소통술기에 이르기까지 콜라주(Collage)기법을 사용하여 4개의 행동유형 조별 활동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부 순서로, 그간의 고충과 애환을 내려놓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병동에서의 황당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에서부터 현재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생각에서,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꿈과 포부까지 나누며 서로의 모습을 비춰보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신규 간호사는 “함께 입사한 동기들을 만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고 동기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동안 힘들다고 느껴졌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며 “신규직원에 대한 병원의 많은 관심을 느낀 만큼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안암병원의 간호사가 되고싶다” 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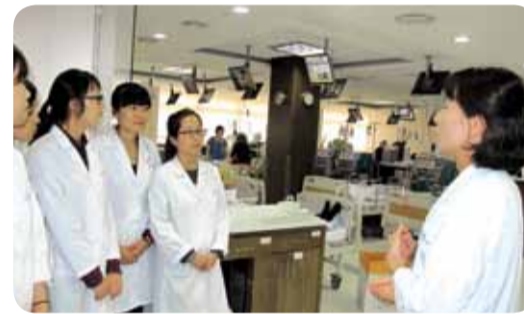
### 피부과 계영철 교수, 대한피부과학회 이사장 취임




고려대병원 피부과 계영철(57, 桂永澈)교장이 대한피부과학회 이사장에 공식 당선됐다. 이번 이사장 당선은 최근 대한피부과학회 회의에서 선출자격이 있는 이사회 대표단의 투표를 통해 이뤄졌다. 임기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계영철 교수가 이사장을 맡게 된 대한피부과학회는 1945년 설립된 이래 현재 학회원이 2천명이 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이다. 계영철 신임 이사장은 “한국의 피부과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회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도록 학술지 등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계영철 교수는 1980년 고대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미국 토마스 제퍼슨 의과대학에서 연수를 마친 바 있으며, 현재 고려대 안암병원 피부과 과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회장 및 대한 레이저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레이저를 비롯한 여러 피부질환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험관리 기술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려대병원 피부과 계영철(57, 桂永澈)교장이 대한피부과학회 이사장에 공식 당선됐다. 이번 이사장 당선은 최근 대한피부과학회 회의에서 선출자격이 있는 이사회 대표단의 투표를 통해 이뤄졌다. 임기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계영철 교수가 이사장을 맡게 된 대한피부과학회는 1945년 설립된 이래 현재 학회원이 2천명이 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이다. 계영철 신임 이사장은 “한국의 피부과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회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도록 학술지 등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계영철 교수는 1980년 고대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미국 토마스 제퍼슨 의과대학에서 연수를 마친 바 있으며, 현재 고려대 안암병원 피부과 과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회장 및 대한 레이저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레이저를 비롯한 여러 피부질환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험관리 기술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2011 선린대학 현장학습 실시





간호부는 지난 10월 11일 오후 1시부터 선린대학 간호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원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학습은 진료의 전문화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안암병원과 선진화된 간호관리 시스템에 대한 선린대학의 견학 및 체험 요청에 따라 실시

되었으며 이은숙 간호부장의 ▲환영인사로 시작하여 ▲간호부 소개 ▲간호사의 자세 ▲선배와의 만남 ▲현장 견학 순으로 약 세 시간 가량 이뤄졌다. 이은숙 간호부장은 인사말에서 “실천할 줄 아는 사람만이 미래의 꿈에 보다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 며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자신의 꿈을 보다 더 현실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현장학습에 참석한 한 학생은 “직접 병원을 돌아보며 병원의 현장감을 느껴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 며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선배처럼 입사하고 싶다” 는 포부를 다지는 소감을 전했다. 

### ‘2011 임상간호연구논문 중간발표회’ 성료



간호부는 9월 30일(금) 중회의실에서 '2011년 임상간호연구논문 중간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중간 발표회는 3월 임상간호연구를 진행할 부서 선정 후, 4월 각 부서에서 선정한 연구주제를 토대로 임상간호연구논문 Proposal 발표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8월 임상간호연구논문 워크숍을 거쳐 진행해 온 각 부서의 논문 발표를 통해 논문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완성도 높은 연구를 위해 서로 조언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논문 중간발표를 마친 후에는 각 연구 진행부서에 임상간호연구를 위해 필요한 통계처리 및 자료수집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임상간호연구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부서별 논문의 주제는 전회추후관리 프로그램이 외파된 복용환자의 가지효능감과 자기관리 정도에 미치는 효과(83병동), 온요법이 Oxaliplatin을 투여받는 대장암 환자의 말초신경병증 불편감에 미치는 효과 등이며, 총 12부서에서 2011년 임상간호연구를 진행해 올 연말 완성을 목표로 하여 임상간호연구를 진행 중이다. 발표회에 참가한 한 간호사는 “오늘 조언해주신 덕분에 우리 병동 연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연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며 “임상간호연구 지원금까지 병원에서 지원해 주시니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여 근거기반 간호실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부는 9월 30일(금) 중회의실에서 '2011년 임상간호연구논문 중간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중간 발표회는 3월 임상간호연구를 진행할 부서 선정 후, 4월 각 부서에서 선정한 연구주제를 토대로 임상간호연구논문 Proposal 발표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8월 임상간호연구논문 워크숍을 거쳐 진행해 온 각 부서의 논문 발표를 통해 논문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완성도 높은 연구를 위해 서로 조언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논문 중간발표를 마친 후에는 각 연구 진행부서에 임상간호연구를 위해 필요한 통계처리 및 자료수집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임상간호연구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부서별 논문의 주제는 전회추후관리 프로그램이 외파된 복용환자의 가지효능감과 자기관리 정도에 미치는 효과(83병동), 온요법이 Oxaliplatin을 투여받는 대장암 환자의 말초신경병증 불편감에 미치는 효과 등이며, 총 12부서에서 2011년 임상간호연구를 진행해 올 연말 완성을 목표로 하여 임상간호연구를 진행 중이다. 발표회에 참가한 한 간호사는 “오늘 조언해주신 덕분에 우리 병동 연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연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며 “임상간호연구 지원금까지 병원에서 지원해 주시니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여 근거기반 간호실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 스마트한 진료재료물류시스템 도입한 '관리팀'

[ 이부서이사람 ]

## 진료재료의 자산관리 및 소재파악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 도모



'진료재료물류시스템' 도입의 주역, 관리팀 여러분 (앞줄 가운데 관리팀 김대식 팀장)

고려대병원(원장 김창덕)은 9월 16일 오후 4시30분 관리팀 중앙창고에서 손창성 의무부총장, 김창덕 병원장, 김병균 사무국장,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이은숙 간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료재료신물류시스템 가동식' 을 개최했다.

이번에 구축한 신물류시스템은 구매조달 및 원내물류관리 전 과정을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체계로 병원은 각 부서 재고관리를 국제 표준 물품 바코드와 모바일 PDA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최적의 재고관리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병원이 의약품을 비롯해 진료재료, 의료소모품 등을 자체적으로 구매하고 관리를 했지만 단순히 의약품 등을 중앙창고에 공급·보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자재관리를 전산화해 비용을 절감하는 물류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원내 신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병원들은 인건비, 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를 비롯해 구매비용 절감, 재고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아웃소싱으로 인한 선택과 집중, 병원 내 창고 최소화로 공간적 비용 절감,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경영으로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은 이 같은 시스템으로 구매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관리와 처방누락, 오류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진료부서와 협의함으로써 만에 하나 재료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관리의 투명화가 이루어졌다. 모든 구매·조달·재고 등의 업무가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대식 관리팀장은 "실제로 병원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 및 시스템적인 측면,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예상된다"며 "구매 및 재고비용의 절감을 포함한 인건비 및 관리비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통합물류관리시스템에 의해 절감된 비용과 인력은 환자를 위해 재투자되는 장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덕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병원경영의 성패는 효율성강화와 비용절감을 얼마나 잘 수행해 내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물류 혁신은 병원경영 혁신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료재료 및 신물류시스템 가동식 행사 장면

# 10월 1일부터,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경증환자 20%인상

[ 병원생활 안내 ]

10월1일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값 본인부담금이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10월1일부터 약국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이와같은 정책을 적용했다. 약국본인부담금이 차등화 되는 대상질환은 양성 또는 상세불명의 고혈압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등을 비롯해 결막염, 노인성 백내장, 급성 인두염-편도염, 천식, 위식도역류병,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위궤양, 변비, 아토피 피부염, 일부 척추증과 추간판 장애 등 총 52개 질환이다.

**10월 1일부터 의원에서 진료가능한 질병으로 대형병원(상급종합, 종합)에 가시면 약값의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대상질환	고혈압 등 52개
상급종합 : (현행) 30% → (변경) 50%	
종합병원 : (현행) 30% → (변경) 40%	

약국 본인부담률 변경내용

- 대상질환 : 고혈압 등 52개
- 상급종합 : (현행) 30% → (변경) 50%
- 종합병원 : (현행) 30% → (변경) 4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들 질환으로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현재 30%인 약국 본인부담금의 50%를 내야하고, 2차 병원 방문 시에는 40%를 내야 한다. 하지만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현재처럼 30%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약국 본인부담금 인상은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집중화를 완화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환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진료실에 부착하는 안내문에 내년 1월부터는 선택의원제가 시행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가 각 병원에 배포한 포스터를 보면 하단에 '2012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을 선택해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져 환자부담이 줄어든다'고 명시했다. 이는 선택의원제를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복지부가 강행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알아두면 좋을, 2011년도 생활 속 보건의 정책

-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30만원→40만원)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대폭 확대(소득하위 50%이하→70%이하)
-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 지원 확대(0-24개월 →0-36개월, 10만원→10-20만원/월)
- ※다문화가족 전면 무상보육 실시
- ※난임부부 체외수정기술비 지원 확대(3회까지 150만원→180만원, 4회 100만원)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18세 미만 임신중 의료비 120만원 한도내 지원)

# 춥고 건조해지는 계절, 우리아이 건강 대책

[ 의학정보 ]

## 겨울이 되면 추위, 탁한 실내공기, 진드기 등으로 각종 소아질환 급증

춥고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 실내활동을 하는 시간이 많아져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노출이 잦아지고 실내외의 기온차도 심해 아이들의 환경적응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추운 계절이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이 늘어나게 되는 데 대표적 소아 호흡기 질환으로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이 있으며, 알레르기성 질환으로는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이 있고 특히 알레르기 비염, 천식이 있는 어린이들은 겨울철이면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할만큼 고생을 하게 된다. 고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유영 교수의 도움말로 가을철 소아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 ▶독감

흔히 독감이라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12월에서 다음해 3, 4월까지 주로 겨울에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일반 감기보다 증상이 심하고 전염력이 강하며, 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독감이라고 불린다.

처음 증상은 갑자기 콧물, 눈의 충혈, 눈곱, 목의 통증, 기침, 고열이 나타나며, 근육통이 심해서 온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으며 두통이 심해진다. 때로는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되며 묽은 변을 보기도 한다. 대개 2-4일 후에 열이 떨어지지만 기침이나 다른 증상은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 소


아에게는 합병증으로 중이염과 폐렴이 가장 흔히 나타나며 드물게 라이증후군이라는 치명적인 병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선천성 심장병, 천식이나 기관지염 등의 만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매우 심해질 수 있다.

독감 예방주사는 매년 가을 9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접종하며,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여러 가지 감기를 다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독감 한 가지, 즉 인플루엔자만을 예방하는 것이므로 다른 종류의 감기에는 걸릴 수 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독감치료약이 개발되어 나오고 있으나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소아에게는 사용에 제한이 많다. 그 밖의 치료는 감기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증상을 약하게 해서 환자가 편안하도록 도와주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해 줄 수 있다. 잘 쉬게 하고, 열을 가리았하며, 근육통과 두통을 덜어주고, 잘 먹지 못하는 경우는 수액주사로 영양을 보충해준다.

###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비염은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등 콧속으로 흡입된 다양한 항원물질이 코점막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병으로 단기간에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 알레르기 질환이다. 재채기, 맑은 콧물, 코 막힘, 그리고 코 안이 가려운 것이 일반적 증상으로 정확한 항원물질을 찾아내기 어려우며 중이염, 부비동염(축농증) 등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원인물질을 피해주는 '회피요법'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항원물질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항히스타민제 또는 스테로이드제를 코에 뿌리는 등의 약물치료로 증상을 억제하는 '약물요법'을 쓰게 된다. 그러나 코에 뿌리는 약 중에 충혈제거제는 일시적인 효과는 빠르나 남용시 '약물중독성 비염'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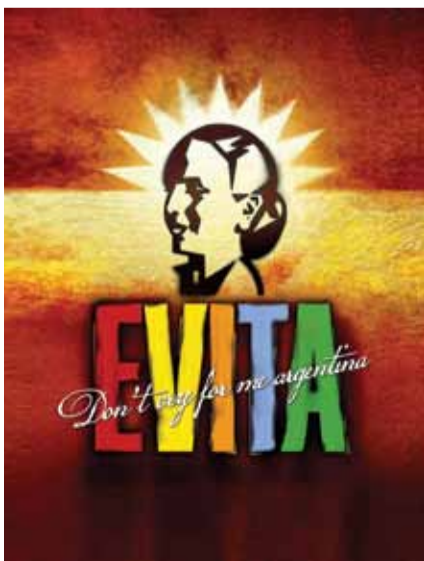
천식은 잦은 기침, '쌩쌩' 거리는 숨소리, 그리고 호흡곤란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만성질환으로 역시 한 번 생기면 쉽게 낫지 않으며 최근 20여년 동안 3, 4배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천식의 기침은 감기의 기침과 달라서 심할 때는 한꺼번에 수 십번의 기침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고 주로 한 밤중이나 새벽녘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부모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천식은 전혀 증상이 없는 시기와 증상이 심한 시기가 교대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아이가 갑자기 천식발작을 하게 되면 숨이 넘어갈 듯한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이는데 이런 경우 일단 방안 공기를 환기시키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게 하며 배에 힘을 주고 복식호흡을 통해 가래를 뱉어내게 하며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시킨다. 천식치료는 급성 발작 증상의 치료보다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일단 급성 증상이 치료되면, 이에 만족하지 말고 가족들과 의료진이 함께 천식 예방과 유지 치료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만 기관지 상태를 정상으로 잘 유지하여 장기적인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천식 예방 약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기관지에 직접 투여하는 형태의 흡입제제로 된 항염증제를 증상이 없을 때에도 꾸준히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도움말 | 천식환경보건센터, 소아청소년과 유영 교수, 외래 | 02)920-5650


# EVITA

[ 문화소개 ]

## 아름다운 음악, 화려한 춤, 격정적 드라마 더욱 화려한 감동으로 돌아온 흥행명작



〈에비타〉는 웨스트 엔드에서 1978년에 초연되어 2,900회, 브로드웨이에서 1979년 막을 올려 1,567회 장기 공연됐다. 런던 초연 당시 50만 불이 넘는 사전 티켓판매를 기록하는 등 웨스트 엔드와 브로드웨이 역사상 박스 오피스 최다 기록을 달성했으며 토니상 7개 부문을 수상을 비롯 비평가협회상, 그래미상 등 뮤지컬 최고의 상을 휩쓰는 성공을 거뒀다. 이후 1996년 마돈나 주연의 영화 〈에비타〉로 재탄생되어 영화계로부터 크게 호평 받았으며, 2006년 영국에서 리바이벌 공연이 올려지는 등 최고의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명작답게 세계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2011년 대미를 장식할 감동대작 〈에비타〉가 오는 12월 9일 LG아트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에비타〉는 〈오페라의 유령〉, 〈갯츠〉를 탄생시킨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작품으로 2006년 국내 초연되어 20~30대 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관객을 넓히며 흥행을 기록한 작품으로 향후 국내 뮤지컬팬들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글 | 원대기자 조규은(중합건강진단센터)

### 공연 개요

공연기간 : 2011년 12월 9일 ~ 2012년 1월 29일  
 공연시간 : 평일 8시 / 토 3시, 7시30분 / 일 2시, 6시30분  
 (12월 마티네 공연- 수요일 3시)  
 출연배우 : 정선아, 리사, 박상원, 박상진, 이지훈, 임병근, 박선우 외  
 공연장소 : LG아트센터  
 러닝타임 : 2시간 30분(인터미션 포함)  
 정 상 가 : VIP 13만원, R 10만원, S 8만원, A 5만원, B 3만원  
 예 매 처 : LG아트센터, 롯데닷컴, 예스24, 옥션, 인터파크, 티켓11번가  
 연 출 : 이지나 공연문의 : 1577-3363

